

조합원 맞춤 지원...경제사업 1000억 돌파 '결실'

현장리포트 선도농업을 가다

영암농주농협

전남 영암의 들녘은 계절마다 분주하게 움직인다. 모내기과 수확이 반복되는 평야지대. 오랜 시간 이곳 농업은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에서는 농업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생산량 중심에서 벗어나 비용과 효율, 그리고 소득까지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조합원별 수요에 맞춘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구조를 바꾸고 있는 영암농주농협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내부 경영지표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경제사업 실적은 1018억원으로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고, 상호금융 부문에서도 예수금 1373억원, 대출금 1000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1% 미만으로 유지되며 재무 건전성도 확보했다.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사업 이용률과 운영 효율이 동시에 개선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다 뚜렷한 변화는 현장에서 나타난다. 영암농주농협은 자원의 기준을 '균등 제공'에서 '수요 대응형 지원'으로 전환했다. 조합원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를 동시에 거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농자재 교환권 사업이다. 농가가 필요한 자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2016년 이후 누적 지원액은 15억원을 넘어섰으며, 농가에서는 실제 경영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 방식의 변화가 농가 지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접근은 교육 체계에도 반영됐다. 펠론과 벼, 단호박, 고추 등 주요 작목 중심 교육에는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생산 현장에 즉시 적용되고 있다. 단순한 재배 기술 전달을 넘어 작목 간 연계를 통한 소득 구조 다변화까지 유도하면서 농가별 여건에 맞는 생산 전략 설계로 이어지고 있다.

지원 방식의 변화는 개별 사업을 넘어 전체 구조로 확장됐다. 영암농주농협은 이를 '실효성 중심 4대 지원사업'으로 구체화했다.

고추·배추·단호박 모종 지원, 농용품 무인헬기 방제, 벼 먹노린재 방제, 친환경 벼 재배 지원이 그것이다.

모종 지원은 생산 초기 비용을 낮춰 진입 부담을 줄이고, 단호박 등 신소득 작목을 포함시키며 농가 선택 폭을 넓힌다.

방제 분야에서는 무인헬기 공동 방제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먹노린재 방제와 연계해 병해충 대응의 시기와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다. 친환경 벼 재배 지원은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병행하면서 시장 수요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이들 사업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영암농주농협이 펠론 공선출하회 운영 및 고품질 멜론 출하식을 개최했다.

체감형 농협으로 구조 전환 농가소득 증대 기여 생산·비용·유통 연결...비용 절감 구조 체계화



영암농주농협이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한 무인헬기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조합원이 생산한 벼 전량 수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생산 단계에서 비용을 낮추고, 재배 과정에서 노동 부담을 줄이며, 수확 안정성을 확보한 뒤 품질 경쟁력까지 높이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이 농가소득으로 수렴되는 체계다.

현장 중심 지원도 눈길을 끈다. 농번기를 앞두

고 진행되는 소형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사업은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작업 지연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역할을 한다. 2016년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농가 경영 안정성을 보완하는 장치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자체 합인, 농약 가격 인하, 공동구매 사업 등이 더해지면서 경영비 절감 효과가 누적되고 있다. 복지 사업도 농촌 공동체 유지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어버이날 행사, 복달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농촌 왕진버스 운영 등은 고령화된 농촌 환경에서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로마트 역시 합인과 배송 서비스를 통해 지역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조직 기반 지원 체계는 위기 상황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구제역 발생 당시 영암농주농협은 선제적인 방역 대응과 자체 지원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개별 농가 대응이 아닌 조직 중심 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한 사례다.

이는 과거 멜론 사업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2012년 시작된 멜론 판매사업은 10년 만에 사업량이 10배 이상 성장했다. 참여 농가는 30명에서 50여명으로 늘었고, 물량은 66t에서 770t으로 확대됐다. 농협은 공선출하를 중심으로 재배기술 교육과 품종 선별을 진행하며 생산을 표준화했고, 출하 시기 조정과 판로 다각화를 통해 유통 안정성을 확보했다. 일부 물량은 정가·수의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가격 결정력도 높아졌다.

결국 생산 관리, 품질 통일, 유통 확대, 가격 주도권 확보로 이어지는 구조가 구축됐고, 현재 영암농주농협이 추진하는 소득 중심 농업의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인터뷰 이재면 영암농주농협 조합장

"농협 기준은 소득...조합원 실익 최우선"

"농협은 결국 조합원의 소득으로 평가받는 조직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면 영암농주농협 조합장은 농협 운영의 중심을 '조합원 실익'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농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협이 중심을 잡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꼽았다. 그는 "이상기온과 병해충 증가로 기존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워졌다"며 "수확량과 품질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농가 소득 불안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응 방식도 바꿨다. 이 조합장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병해충 방제도 발생 이후가 아니라 사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헬기를 활용한 공동 방제와 육묘 공급 확대 등도 같은 맥락이다.

또 "농가 단위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농협이 중심이 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기술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암농주농협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지도사업이다. 그는 "영농자재 교환권 사업을 확대해 조합원이 필요한 자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검진 지원 등 복지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펠론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해 농산물 가격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은 경영 성과로도 이어졌다. 그는 "예수금과 대출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조합원 이용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암농주농협의 경쟁력으로는 '사람'을 꼽았다. 이 조합장은 "조합장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이를 실행하는 힘은 결국 직원에게서 나온다"며 "직원들이 조합원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현장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해나 위기 상황에서 직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구제역 발생 당시에



도 자발적인 방역 활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줬다"고 덧붙였다.

농정과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는 생산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비료와 유류, 자재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생산비 상승을 흡수할 수 있는 상시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력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급 불안과 숙련도 문제 등 한계가 있다"며 "실제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 조합장은 "소득은 생산량보다 어떻게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다"며 "생산비 절감, 유통 구조 개선, 소득 작목 집중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종 지원과 자체 지원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공선출하와 판로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품종 선택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농협이 함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농업 정책은 규모보다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역과 작목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농협은 단순한 지원 기관이 아니라 조합원의 소득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생산과 유통이 연결된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농협은 조합원의 참여와 신뢰로 만들어졌다"며 "이용할수록 도움이 되고 함께할수록 더 강해지는 농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영암농주농협이 신소득 작목 활성화를 위한 단호박 계약재배사업 모종을 공급했다.